

멕시코의 인간상과 문화¹⁾

사무엘 라모스

멕시코인에 대한 정신분석

“인간이 견딜 수 있는 진리는 어느 정도인가?” 이 글이 끝날 즈음에 우리는 니체의 이 질문을 상기하게 될 것이며 독자는 이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우리가 생각하는 멕시코인의 정신에 대한 가혹하면서도 객관적인 글이 될 것이다. 그렇다고 이 글이 멕시코인을 폄하한다고 추측한다면 오판이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멕시코인의 기질이 멕시코인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의지를 초월한 역사적 숙명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보게 될 기질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 그다지 반갑진 않겠지만, 옷을 갈아입듯 그 기질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놓일 것이다. 그 기질은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위장하기 위해 받아들인 것이니 수치스러워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이 글은 자기비하도 “부르주아 골탕 먹이기”²⁾라는 목적으로 굶어 부스럼내자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속을 환히 내보여서 얻을 게 없을 때는 마음을 드러내지 않아

- 1) 이 글은 사무엘 라모스(Samuel Ramos)의 유명한 책 『멕시코의 인간상과 문화』(El perfil del hombre y la cultura en México)의 일부를 옮긴 것이다.
- 2) 19세기말 보들레르와 랭보 등 프랑스의 데카당스 문인들이 부르주아의 속물주의를 경멸하며 썼던 말이다—옮긴이.

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멕시코인은 기질이 운명에 맞지 않을 때 기질을 무시하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기질을 인지하기 전에는 기질을 바꾸지 않는다. 사실 이것이 기만 속에 사는 것보다 나은 것이다. 어쨌거나 이 글은 멕시코인의 대표적인 기질을 살펴보는데 그치지 않고 그 기질의 숨겨진 원인과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를 깊이 있게 들여다볼 것이다.

이 글의 목적은 악의적으로 멕시코인을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다. 누구든지 우리의 정신을 연구하고 출판할 자유가 있으며, 그 결과가 불편하든 그렇지 않든 우리 모두에게 유익할 것이다. 제때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을 파괴할 수도 있는 비밀스러운 힘이 우리에게 내재되어 있음을 알게 해주니 말이다. 비판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찬사가 아니면 적대시하지만, 사실은 그 찬사가 그들을 적대시하고 상처를 야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우리 민족의 열등감에 대해 말한 사람들은 있었지만, 그들 중 누구도 우리의 기질에 대한 주장을 체계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이 글에서 나는 처음으로 아들러³⁾의 심리학 이론을 멕시코인에 적용할 것이다. 자기의 개성을 지나치게 긍정하는 모든 개인, 다시 말해 권력을 의미하는 일이나 상황에 강한 관심을 보이고 모든 점에서 앞서고 지배하고자 지나치게 애쓰는 사람들에게겐 열등콤플렉스가 있다. 아들러는 아이가 자신의 힘이 부모의 힘에 비해 무기력함을 인식했을 때 열등감이 나타난다고 한다. 멕시코가 형성되고 문명 세계에 진입했을 때의 상황은 어린 아이가 어른을 마주하는 것과 같았다. 성숙한 문명이 지배하는 시기에 역사에 진입한 것이었으니, 유아적인 정신으로는 그 문명의 절반도 이해하기 힘들었다. 이런 불리한 상황에서 열등감이 태어났으며 정복과 혼혈과 불균형적인 거대한 자연(Naturaleza)에 의해 악화되었다. 하지만 그러한 심리가 멕시코인의 심리에 예민하게 작동하진 않는다. 독립 시기이던 1830년대까지는 말이다.⁴⁾

3) 아들러(Alfred Adler, 1870~1937, 오스트리아). 개인심리학을 수립한 정신의학자—윝긴이.

4) 카이질링은 “미성숙한 민족에겐 응집적이고 비판적인 정신이 없다. 그런 민족은 모든 미성숙한 존재가 그러하듯이 정신적으로 수동적이고 아주 쉽게 영향을 받으며 악평도 감수한다. 이는 생리학적으로든 도덕적으로든 약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그들은 지속적으로 열등감에 사로잡혀있다”라고 지적한다.(*L'Avenir de l'Esprit Européen*, Edición del

이러한 해석에 근거를 대려고 자료를 모을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 문제에 진지하게 관심을 두고 이 해석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독자라면 이를 입증할 자료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멕시코인의 삶을 얘기하기에 앞서 우리는 개인의 심리가 어떻게 작용하고, 그 일반적 반응이 무엇이며 그 동인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독자 여러분은 멕시코인은 열등한 게 아니라 “열등감을 느낀다”라고 —이 말의 차이는 아주 크다— 밝히고 있는 이 글에 불쾌해하지 말 일이다. 사적인 경우에 열등감이 정신적, 기질적 결점으로 이해된다면, 대부분의 멕시코인에게 열등감은 집단적 환영으로서, 선진국의 아주 높은 가치로 인간을 평가하려는 데서 기인한 것이다. 그러하니 독자 여러분은 아주 공정하게 우리들이 지닌 사고를 파고들기 바란다.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언짢아하는 독자가 있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하지만 카이저링이 지적하듯, 우리 아메리카 나라에는 “쉽게 흥분하는 성향”이 있으며, 이러한 불쾌감의 반응이 바로 이 글에서 확실히 확인하고자 하는 바이다.

펠라도⁵⁾

멕시코인의 영혼을 추동하는 힘을 찾아내려면 멕시코인들이 집단적으로 행한 주요 운동을 살펴봐야 한다. 플라톤은 국가를 개인이 확장된 이미지로 이해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글에서 멕시코인의 태도가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삶에서 동일함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멕시코인의 심리는 열등감을 감추려는 행위의 결과이다. 첫 장에서 설명했듯, 그러한 위장은 외부세계에 대한 재현을 조작하고 자신에 대한 가치를 고양함으로써 실행된다. 멕시코인은 유럽 문명의 양식을 모방함으로써 자신의 가치가 유럽인과 동일하다고 느끼며 자신이 사는 도시에 특권 그룹을 형성하여 문명의 외부에 있는 여타 멕시코인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한다. 이 허구화는 외부의 대상에 대한 것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또 그렇

Instituto de Cooperación Intelectual, 1934, 28.)

5) 펠라도(pelado)는 문화적 하류층이나 무지렁이를 의미한다—옮긴이.

게 허구화한다고 하여 열등감으로 파괴된 정신적 균형이 회복되는 것도 아니다. 이 허구화는 개인에게도 적용되는데, 개인은 자신에 대한 자의식마저 조작한다. 그렇다면 멕시코인에 대한 정신분석에서 그 개인적 측면을 살펴보자.

멕시코인의 정신적 메커니즘은 모든 운동이 격화된 사회라는 컨텍스트 속에서 살펴봐야 하며, 이로써 우리는 멕시코인의 정신이 형성된 노정을 파악하게 될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 멕시코의 펠라도가 있는데, 이 말은 멕시코인의 기질을 명확히 포착한 표현이다. 대중극이나 소설, 회화에서 지겹도록 쓰인 바 있으니 잡다한 설명은 생략하겠다. 이 글에선 그 용어의 속말을 살핌으로써 그 특징을 보여주는 근본적 힘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사실 이 말의 의미는 아주 명확하다. 보통 자신의 영혼을 거리낌 없이 드러내는 사람으로 자신의 가장 깊은 내면에 아무 것도 숨김이 없는 사람을 일컫는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감추고자하는 충동을 뻔뻔하게 과시한다. 펠라도는 하층 사회집단에 속하며 대도시의 파괴된 인간을 대변한다. 이들은 경제적으로는 프롤레타리아만도 못하며 지성에 있어서는 미개인이거나 다름없다. 삶의 모든 것이 그들에게 적대적인 탓에 삶에 대한 그들의 태도는 양심으로 가득 차있다. 그들은 폭발성의 본성을 지닌 위험한 자들이라서 사소한 마찰에도 폭발한다. 그들이 폭발하면 욕지거리를 퍼붓는데, 천박하고 공격적인 말을 쏟아냄으로써 자신을 긍정한다. 그들에겐 그들만의 은어가 있는데, 그 말들은 일상어에 새로운 의미를 가미한 것들이다. 그들은 사람들을 놀래고 자기들이 더 강하고 단호하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포악한 행동을 일삼는 짐승들이다. 그러한 행위는 갈 데까지 간 그들의 현실을 만회하려는 허위이다. 이 불편한 진실은 의식 밖으로 표출되려 하지만, 개인의 가치에 대한 감정을 억누르는 무의식적인 힘이 그 작용을 방해한다. 모든 외적 조건이 열등감을 악화시키는 탓에 그들은 의기소침함을 감추려고 폭력적인 반응을 보인다. 이것이 지속적인 화의 원인이며 그 화 때문에 아무 것도 아닌 일로 싸우는 것이다. 그 호전적 정신은 인간에 대한 적대감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펠라도는 풀죽은 ‘나’의 목소리를 끌어올리기위한 자극제로 싸움을 갈구한다. 자신에 대한 믿음을 다지기 위한 지지대가 필요한 것이다. 그들은 현실적

인 가치라고는 가진 게 없으니 허구적인 것으로 그 가치를 메워야 한다. 그들은 아무 것도 없는 망망대해에서 불안해하다가 남성다움이라는 예기치 않은 구명줄을 발견한 조난자들이다. 펠라도는 성적 함의가 짙은 용어로서, 남성적 힘을 상징하는 남근에 대한 강박을 표출하는 말이다. 따라서 그들은 싸울 때 상대에게 가상의 여성성을 부여하고 본인은 남성의 역할을 자처한다. 이러한 책략으로 상대보다 우월함을 확인하려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예를 보도록 하자. 안타깝게도 펠라도라는 말은 날것 그대로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탓에 정말 독특한 표현들의 상당수는 옮겨 쓸 수도 없다. 그렇다고 하여 몇 가지 전형적인 표현을 누락할 수는 없는데, 독자들은 인용될 말들을 불쾌하게 받아들이지 말 일이다. 멕시코에서 이 표현들은 아주 허물없는 대화에서 사용되는 것으로서 심리학자라면 그 말의 천박함과 투박함에서 고결한 의미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혹여 이 표현들이 귀중한 연구 자료임을 저버리고 언어의 품위를 깎아내리는 것으로 치부해서는 안 될 일이다. 이는 화학자가 나쁜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분석의 대상 물질에 대한 연구를 거부하는 것과 같다.

펠라도는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지만 ‘튼실한 알’(고환)을 지녔다고 표출함으로써 스스로를 위안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신체기관이 한 가지 능력, 즉 성적 능력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능력을 포괄한다는 것이다. 펠라도는 어떤 활동이든, 어떤 분야에서든 승리하는 자이며, 이것은 그가 ‘튼실한 알’을 지녔기 때문이다. 더불어 자주 쓰이는 표현으로 “내가 네 애비다”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우월함을 표출하려는 의도가 담겨있다. 따라서 가부장적인 우리 사회에서 아버지가 권력의 상징임을 분명하다. 펠라도라는 말이 지닌 남근에 대한 강박은 다산과 영원한 삶의 의미가 담긴 남근숭배와 다르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펠라도에게 남근은 권력의 의미를 부여한다. 이로 인해 남자라는 개념이 축소되어버렸다. 남자는 물질적 내용물이 없는 존재인 바, 그 공허함을 접근 가능한 유일한 가치, 즉 ‘마초(수컷)’로 채우려 하는 것이다. 남성에 대한 이러한 개념이 대중화되고 모든 멕시코인에게 불행한 편견이 되었다. 그리하여 멕시코인이 외국의 문명화된 남성과 비교되면서 그 무능함이 드러나면 다음과 같이 위안을 삼는다. “유럽인에겐 과학, 예술, 기술, 등이 있다. 이 땅에 사는 우리

에겐 그 중 아무 것도 없다. 하지만 우리는 진짜 사나이이다”라고 말이다. 동물학적 의미의 남성, 다시 말해 모든 동물적 능력을 향유하는 수컷이 되는 것이다. 허세를 애인으로 둔 멕시코 남자는 그 능력을 용맹하게 표출한다. 그 용맹함이라는 게 고작 연막에 지나지 않거늘!

그러한 바, 우리는 겉모습에 속지 말아야 한다. 펠라도는 강하지도 용감하지도 않다. 그들의 인상은 가짜다. 즉, 자신은 물론 자기와 접촉하는 모든 이들을 호도하려는 위장이다. 용맹함과 힘을 크게 과시한다는 것은 감추고 싶은 나약함도 크다는 것이다. 펠라도가 환상을 통해 제아무리 자신을 속이려하더라도 나약함은 드러날 수밖에 없으며, 이를 부정하더라도 자신의 힘을 확신하지는 못한다. 펠라도는 늘 나약함을 들킬까봐 조마조마하며 자신을 믿지 못한다. 그로 인해 사고력에도 문제가 생기는 바, 장차 마주할 사람을 적으로 가정하고 자신에게 접근하는 모든 사람을 불신한다.

간략하게나마 펠라도에 대해 설명했으니 펠라도의 정신작용과 구조를 개괄적으로 살펴보자. 이는 뒤에서 멕시코인의 심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1. 펠라도는 이중인격, 즉 실제 인격과 허위 인격을 지녔다.
2. 실제 인격은 허위 인격에 의해 감춰져있으며, 주체로서 자신을 드러내고 타인에게 보여주려는 인격은 허위 인격이다.
3. 허위 인격은 실제 인격의 정반대이다. 허위 인격의 목적이 실제 인격의 무기력한 정신력을 끌어올리는데 있기 때문이다.
4. 그는 인간적 가치를 지니지도 그 가치를 습득할 능력도 없는 주체로서 자신의 무력감을 숨기는 책략을 쓴다.
5. 허위 인격이 현실적 토대를 지니지 못함으로 인해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된다.
6. 자기불신은 정신작용을 불안정하게 한다. 특히 현실 인식에 문제를 야기한다.
7. 이러한 비정상적 사고는 타인에 대한 근거 없는 불신을 낳는데, 타인과 접촉하면서 나타나는 지각과민증 등이 그러하다.
8. 이 인간형은 위선 속에 살기 때문에 늘 불안정한 상황에 놓이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 그는 현실에 무관심한 채 끊임없이 ‘자아’를 감시한다.

현실에 대한 주의 결핍과 독단적 상호관계로 인해 펠라도는 내향적인 사람으로 분류된다. 펠라도의 열등감은 멕시코인이라서가 아니라 프롤레타리아라는 조건에 있다. 사실, 프롤레타리아라는 사실 만으로 열등감을 느끼기에 충분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만이 열등감을 야기하는 요인이 아닌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리는 펠라도가 남성다움의 개념을 민족성(nacionalidad)의 남성다움과 결합함으로써 용맹이 멕시코인의 고유한 기질이라는 오류를 발생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펠라도가 애국적 감정에 대해 민감하고 되롱거리며 목청껏 소리치는 것은 민족성 그 자체가 열등감을 야기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멕시코인이 개인적으로든 집단적으로든 빈번하게 애국을 표명한다는 것은 민족적 가치에 대해 확신하지 못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대한 결정적 증거는 교양인이나 지식인 같은 부르주아 멕시코인이 그런 감정을 느낀다는 데 있다.

도시의 멕시코인

여기서는 도시민이라는 인물형을 볼 것이다. 도시민의 심리가 농민의 심리와 다르다는 것은 당연지사이다. 농민의 생활양식이 다를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농민이 인디오 혈통이기 때문이다. 멕시코 인구의 상당부분이 인디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수동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능동적인 그룹은 도시에 사는 메스티소와 백인들이다. 인디오의 피가 이 그룹과 섞여있으니 인디오가 이 그룹의 영혼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오늘날 인디오의 사회적, 정신적 영향력은 외모로만 축소되었다. 마치 멕시코의 삶의 드라마에 조용히 들어온 코러스인 듯이 말이다. 그러나 그들의 출현이 제한적이라고 하여 그들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인디오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화학작용을 일으키는 ‘촉매’라고 할 수 있다. 그 어떤 것도 그 영향을 제거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인디오들은 이 나라에 있는 모든 것을 감싸는 두터운 대기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인디오는 멕시코의 배후지(背後地)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장에서 이를 다루지는 않을 것이다.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가장 두드러진 멕시코인의 특징은 불신이다. 그러한 태도가 사람과 사건의 모든 접촉의 기저에 있다. 그 태도를 지니게 된 토대가 무엇인지는 차치하고라도 어쨌든 그러한 태도가 나타난다. 그 불신에 원칙은 없다. 왜냐하면 멕시코인들은 보통 원칙이 없기 때문이다. 그 불신은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비이성적 불신이다. 그 불신이 가장 기본적인 삶의 감정이다. 이에 대한 입증 여부와 상관없이, 멕시코인이 불신을 통해 이해하고 판단한다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다. 불신은 멕시코인이 지닌 “선협적” 형태의 감수성이라 할 수 있다. 멕시코인은 특정 부류의 남성 혹은 여성을 불신하는 게 아니다. 모든 남성과 여성을 불신한다. 멕시코인의 불신은 사람에 대한 불신으로 제한되지 않고 존재하고 발생하는 모든 것으로 확장된다. 예컨대 상인은 거래를, 직장인은 직업을, 정치인은 정치를 신뢰하지 않는다. 멕시코인은 관념을 무의미한 것으로 판단하고 그것을 경멸하여 “이론”이라 부르며, 과학적 원리에 대한 지식을 무용한 것으로 치부한다. 얼핏 보면 실용성을 중시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멕시코인은 행동이 굼뜨지라 행위의 효력에 대해서도 그다지 신뢰하지 않는다. 종교도 신앙도 없으며 사회적, 정치적 신념도 없다. 최대한 ‘이상주의자’가 아니고자 한다. 이유 없이 모든 것을 부정하는데, 이는 부정이 인격화된 존재가 멕시코인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멕시코인은 왜 사는가? 무심코 말한다면 아마도 살아가는데 이념이나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겠느냐고 대답할지도 모른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다. 멕시코인의 삶은 통상적으로 계획조차 없는 분별없는 행동이라는 인상을 준다. 멕시코인은 즉각적인 목적에만 관심을 둘 뿐이다. 오늘과 내일을 위해 일하지만 그 다음을 고려하진 않는다. 미래라는 걱정거리는 멕시코인의 의식에서 제거되었다. 장기적인 결과를 기대해야 하는 일에 모험을 걸 멕시코인은 없다. 다시 말해, 멕시코인은 삶에서 가장 중요한 미래를 버린 것이다. 그것이 멕시코인의 불신이 낳은 결과이다.

현재로 제한된 삶에는 본능만 작동한다. 지적인 숙고는 우리가 활동을 멈췄을 때만 개입할 수 있다. 사고와 행동은 동시적일 수 있다. 사고한다는 것은 우리가 기다릴 수 있으며 기다리는 자에게 미래가 허용된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미래가 없는 삶이 표준을 가질 수 없음은 자명하다. 그

로 인해 멕시코인의 삶이 바람에 휘둘리며 정처 없이 표류하고 있다. 사람들이 닳치는 대로 산다는 말이다. 멕시코 사회가 규율도 조직도 없는 혼돈에 빠지고 그런 사회에서 사람들이 산발적인 원자마냥 멋대로 움직이는 건 당연하다.

불신의 직접적 산물인 이 혼돈의 세계가 바로 그 불신 위에서 불신에 객관적 정당성을 부여하며 자라나고 있다. 개인이 불안정한 세계를 부유한다고 느낄 때, 다시 말해 자신이 밟고 있는 땅에 대해서도 확신하지 못한다면, 불신이 증폭되어 즉각적으로 실리를 취하도록 사람들을 부추긴다. 이로써 삶의 지평은 더욱 협소해지고 도덕은 추락하여 문명의 외양을 갖춘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굶주린 짐승처럼 물질을 놓고 싸우는 미개한 무리를 닮아간다. 불신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표지가 있으니 과민함이 그것이다. 불신하는 자는 모든 것에 대해 늘 불안하여 신경을 곤두세우며 방어적으로 산다. 그는 모든 몸짓과 행동과 말을 의심한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모욕으로 해석한다. 이로써 믿기지 않는 극단에 치우치게 된다. 더 이상 정상적인 지각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지나치게 민감한 감수성 때문에 멕시코인은 끊임없이 싸우게 된다. 때로는 이러한 병리적 반작용이 너무 지나쳐서 불필요한 범죄에 휘말리기도 한다.

방금 기술한 심리적 이상(異狀)은 의심의 여지없이 자신에 대한 불안에서 비롯된 것이다. 멕시코인은 자기도 모르게 그 불안을 세상과 사람에 대한 불신으로 변조하여 외부로 투사한다. 이러한 정신적 전위(轉位)는 “나”라는 자아를 방어하기 위한 본능적 전략이다. 이런 현상의 출발점은 자신에 대한 불신으로 경험된 열등 콤플렉스에 있으며, 개인은 불신에서 오는 불쾌함을 벗어나고자 외부의 존재를 불신으로 대상화한다.

인간이 자신의 영혼에서 불쾌감을 떼어내려 할 때는, 앞서 언급했듯이, 언제나 환상에 기대기 마련이다. 하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독특한 경우엔 그 과정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낳지 못한다. 왜냐하면 피하고 싶은 괴로움을 덮으려고 펼친 장막이 괴로움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괴로움의 동인만 바꿀 따름이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멕시코인의 심리상태에는 내적 괴로움이 담겨있으며 자체적인 조화가 결핍되어 있다. 멕시코인은 민감하고 신경질적이다. 거의 항상 언짢은 기분에 성내고 폭력적이기 일쑤

다.

멕시코인은 충동에 근거하여 자신에게 힘을 부여하는데, 그 힘은 허위이다. 물론 진정한 힘은 충동을 슬기롭게 통제하고 때로는 그 충동을 억제하는데 있다. 멕시코인은 정열적이고 공격적이며 약하기 때문에 전투적이다.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의지가 결핍됐다는 말이다. 한편, 그러한 행동에서 나타나는 힘은 멕시코인의 활력에 부합하지도 않으며 그 활력도 대체적으로 잔약하다. 그렇다면 이들의 폭력적 행동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는 내적인 정신적 불균형으로 초래된 과도한 흥분의 결과로 밖에 볼 수 없다.

자아에 대한 이데아와 멕시코인의 실제 모습을 비교하지 않고는 멕시코인의 심리를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앞서 멕시코인이 스스로에게 힘을 부여한다고 언급했을 때, 이는 멕시코인이 자신에 대해 좋은 자아상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나의 단언에 반하여 그 근거를 찾을 독자들도 있을 것이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모든 멕시코인이 숨기고자 하는 몇 가지 진실을 들춰냈다. 멕시코인은 실제의 자신이 아니라 되고자 희망하는 자신의 이미지로 진실을 덮고 있다. 그렇다면 멕시코인이 속으로 바라는 가장 강렬한 욕망은 무엇인가? 아마도 용맹함과 힘으로 사람들 속에서 우월한 사람이기를 바랄 것이다. 이러한 이미지의 암시가 멕시코인을 작위적으로 고양시키고 그 이미지에 맞게 행동하도록 하여 마침내는 스스로 창조한 환영의 현실을 믿기에 이른다.

부르주아 멕시코인

이 장의 마지막 부분인 이 글에서는 가장 지적이고 교양 있는 멕시코인에 대해 다룰 터인데, 그들 대부분은 이 나라의 부르주아 계층에 속한다. 그들의 특징을 보여주는 표지들은 열등감에 대한 반작용들이다. 물론 이 열등감은 경제적, 지적, 사회적 열등함에서 오는 게 아니라 멕시코인이라는 사실에 기인한다. 본질적으로 부르주아 멕시코인과 프롤레타리아 멕시코인은 다를 게 없다. 다만 프롤레타리아 멕시코인의 열등감이 국적과

사회적 위치라는 두 가지 요소에 의해 나타난다는 점을 빼면 말이다. 도시 프롤레타리아 계층의 거칠고 무례한 말투와 부르주아의 과장되기 일쑤인 예의바른 고상함은 대조적이다. 하지만 교양인 계층의 모든 멕시코인들도 분노로 인해 자기 통제력을 상실하면 하층민의 언어와 어조를 쓴다. 그런 성난 사람을 힐책할 때 우리는 “펠라도 같으니라고!”라고 한다. 부르주아 멕시코인은 농촌 사람들과 똑 같은 애국적 민감성을 지니고 있고 민족성에 있어서도 그들과 동일한 편견을 지니고 있다.

멕시코의 상류층이 하층민과 구분되는 정신적 차이는 상류층이 열등감을 철저히 은폐한다는 데 있다. 그들이 표출하는 행위와 무의식적 동인 사이의 접점이 지극히 간접적이고 섬세하기 때문에, 그 연결점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비해 펠라도는 자신의 심리적 메커니즘을 여과 없이 드러내며 의식적인 것과 무의식적인 것이 마음속에서 아주 간명하게 연결된다. 앞서 봤듯이, 양자는 대척점에 있다.

그렇다면 앞서 살펴본 반작용들을 유발하며 영혼을 성나게 하는 내적 결핍의 감정들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감정들은 불쾌함과 우울함을 야기하기 때문에 의식으로는 그 감정들을 감내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감정들을 무의식 속에 숨길 필요가 있으며, 이로써 그 감정들은 막연히 불쾌한 기분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개인은 그 동인이 무엇인지 알지도 규정하지도 못한다. 그들의 의식을 들여다보면 다양한 양상들이 발견된다. 그 중 몇 가지를 살펴보면, 나약함, 자기 비하(열등감), 무능력함, 활기의 결핍 등이다. 개인이 자신의 열등함을 인정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믿음의 결핍에서 온다.

부르주아 멕시코인은 열등감을 은폐하는 위장을 완벽하게 수행하는데 있어 프롤레타리아보다 많은 지적 자원과 재능을 지녔다. 바꿔 말하면, 각 개인이 설정한 허구의 ‘자아’가 너무나도 완전하여 현실적인 외형을 지닌 바, 진정한 ‘자아’와 거의 구분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멕시코인이 어떻게 허구적 작품을 구현하는지, 다시 말해 어떤 열등감이 반작용을 일으키는지 살펴봐야 한다. 그 작업은, 아주 단순하게는, 실제 모습을 욕망하는 모습의 이미지로 덮고 그 욕망이 달성됐다고 간주하는 것으로 이뤄진다. 때로는 그 욕망이 경멸이나 굴욕을 피하려는

것으로 제한되기도 하지만 나중엔 단계적인 확장을 보이는데, 다른 사람들과 동등해지려는 욕망, 그들 속에서 우월하고자 하는 욕망을 보이다가 마침내는 권력에 대한 의지로 상승한다.

우월성에 대한 욕망에 맞춰 이미지를 구축하는 일은 자신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그로 인해 멕시코인들은 내향적으로 변하고 실재하는 자신에 대한 관심을 상실하게 된다. 멕시코인은 사람과 사물을 거울로 인식하긴 하지만 자신을 좋게 보이게 하는 이미지만 취할 따름이다. 다른 사람들도 그 이미지를 신뢰하고 그 이미지 속에서 자신의 믿음을 강화하리라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환상의 생산이 사회적 공모로 이뤄진다. 하지만 이 현상이 전적으로 멕시코인에게만 나타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국적과 상관없이 보통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그와 같은 허구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허구인줄 알면서도 허구의 영향을 실제로 수용하는 것과 허구인줄도 모르고 허구를 살아가는 것은 다른 일이다. 전자가 삶의 난관과 저항을 이겨내기 위한 자극제로서 이상향 혹은 모형을 갖는 것이라면, 후자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삶이라 할 수 없으며, 삶을 속이는 짓에 다름 아니다. 이 태도는 의식적이고 의도적인 목적에서 비롯한 것이 아니므로 그 어떤 범주의 윤리도 적용할 수 없을 것이다. 최근의 심리학 연구들은 눈이 멀어서 논리를 모르는 게 아니라 무의식에 의해 논리가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그 논리가 이성적인 논리와 다르더라도 말이다. 멕시코인은 자신이 허위를 산다는 것을 모른다. 그렇게 하도록 압박하는 무의식적 힘이 있기 때문인데, 만약 그 속임수를 인지하게 된다면 그렇게 살지는 않을 것이다.

자기기만이 자신이 원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믿음으로 형성되듯, 멕시코인은 자신의 이미지가 만족스러워지면 실질적인 자기 개선의 노력을 단념한다. 그리하여 세월이 흘러도 어떤 변화도 겪지 않는 사람이 된다. 문명세계가 변화하고 새로운 방식의 삶과 예술과 사상이 출현하면 멕시코인은 유럽인과 같다고 느끼려고 모방을 시도한다. 하지만 사실 오늘날의 멕시코인은 한 세기 전의 멕시코인과 다를 바 없으며 걸만 근대적인 도시에서 인디오가 농촌에 묻혀 살 듯 구태의연하게 살아간다.

허구의 세계에 은신코자 자기를 버린 사람이 멕시코인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멕시코인의 심리에 대한 드라마가 이것으로 정리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시각을 인식함에 인색한 멕시코인의 영혼 깊숙한 곳에는 자신의 위치에 대한 불안감이 꿈틀거리고 있다. 미풍에도 부서질 수 있는 멕시코인의 나약한 인격은 자신의 어두운 면을 알면서도 자기보호를 위해 밤송이마냥 자기를 가시로 뒤덮는다. 그를 건드리면 반드시 다친다. 멕시코인은 비판에 대해 지나치게 민감하며, 그 과민함을 유지하며 이웃을 향해 저주를 퍼부을 태세를 갖추고 있다. 그런 이유로 자기비판에 대해서는 마비상태인 것이다. 멕시코인은 타인이 자신보다 열등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 한다. 그들은 그 어떤 우월함도 수용하지 않는 바, 경애와 존중과 규율을 알지 못한다. 그들은 이웃을 멸시하고 제거하는 데 있어 천부적이다. 그들은 식인종처럼 잔인한 저주를 실행한다. ‘자아’에 대한 승배가 고대 아스테카인들 만큼이나 잔학하여, 인간을 재물로 살아간다. 그들은 조갯살처럼 각자 자기 안에 갇혀 타인을 불신하는 태도로 살아가며 누구도 접근치 못하도록 악의를 표출한다. 멕시코인은 집단적 가치에는 무관심하며 그들의 행동은 언제나 개인주의적이다.

멕시코인의 심리에 대한 이 글을 마치기에 앞서, 나는 멕시코인에게 내재된 환영을 쫓아낼 수 있는지 묻고자 한다. 그렇게 되려면 각자가 “너 자신을 알라”라는 소크라테스의 격언을 겸허하고 과감하게 실천해야 한다. 오늘날 우리는 자아를 인식함에 있어 인간의 자연적 능력만으로는 불충분하기에 정신분석을 구축한 지적인 도구를 갖춰야 함을 알고 있다. 그렇게 준비된 인간이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 나머지 일은 알아서 해결될 것이다. 어둠의 존재인 환영은 한 줄기 빛만으로도 사라질 것이다.

[이경민 옮김]

이경민 - 서울대학교 강사